

제 목 : 여성 창업의 꿈을 이루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저는 어려서부터 강아지와 함께 컸고 언젠간 애견사업을 해보고 싶단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이란 게 말처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먼저 회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에서 지쳐 입사 2년차에 뜬금없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었고, 외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업무를 하는 건 비슷하지만 이른 퇴근에 색다른 경험을 자주 할 수 있었고, 어디든 애견인을 받아주고 행복한 애견의 모습을 보며 지내다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보고 느낀 대로 키우던 강아지를 접했더니, 매일 똑같은 사료만 먹어 지겨워하던 아이가 새로운 밥상을 기다리기도 하고, 거부하던 밥을 너무 잘 먹는 모습에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 취업을 미루고 애견사료 쪽으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인 부분에 부딪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반복되는 일상과 늦은 퇴근으로 애견을 챙기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며 어떻게 해야 서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개인이 하는 수제간식 클래스를 알아보게 되었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여기저기 알아보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을 알고 있던 지인의 추천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반려동물 수제간식 수업을 알게 되었고,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일을 관두고 수제간식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 요리학원 원장님의 지도하에 진행된 수업이었는데 수제 애견 간식이란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들 중 애견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골라 요리를 하여 간식과 사료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제대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는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삶고 어느 정도 데치고 여러 가지 베이킹 틀을 이용해 모양을 내고 혼자였으면 정말 많은 시간과 검색이 필요했을 텐데 전문가에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팁을 얻으며 따로 공부를 하니 응용하기도 편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견수제간식사업이 생각보다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았는데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들으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지만 가게 임대하는 것부터 부딪히게 되는 문제였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여야만 제조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제조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서류 작성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기에 저장시설, 포장시설, 건조시설, 분쇄시설, 계량시설 등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성분검사를 보낼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 컴퓨터 작업 또한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어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교육을 마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

니다. 교육을 받을 때 사업장 운영에 관해 정리하고 공부했던 내용과 이 곳 전북에서와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담당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며 수월하게 오픈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내고자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팁은 정말 간단하지만 모르면 무조건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 이미 가게를 오픈하신 분들에게 계속 물어보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해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종이에 오픈 준비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한 후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막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질문을 정리하며 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웃으며 질문한다면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도움을 받으며 어렵지 않게 오픈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홍보를 하지 못하고 열게 되었는데 첫달 매출이 3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들 처음 6개월은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야한다고 해서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누구라도 방문하면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백 명의 손님이 방문을 해주시고 저에게 아이들에게(강아지) 좋은 간식을 먹이고 싶었는데 오픈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제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장사가 잘되진 않았습다. 비가 오거나 타지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외부로 나가거나 집에서 나오지 않으시니 매출이 줄어들 때도 있고, 이런 날이면 하루 종일 무기력 할 때도 있고, 폐기되는 음식도 생기기도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애견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예쁘게 키우고 싶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의류 쪽으로도 공략해 조금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기에 중간 유통을 최소화하고 직접 물건을 사들여 박리다매로 진행하게 된 의류 쪽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품에 만족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지금도 더 좋은 상품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저는 애견수제간식 사업이 무엇보다 다른 사업보다 적은금액으로 시도해볼 수 있어 사업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초기자금이 많지 않아 과연 사업을 해도 될까 정말 많이 고민하였는데 이렇게 사업을 한번 시작해봄으로써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시작이 어렵지, 한번 마음먹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으며 작게 시작하면 사업에 대한 감을 익히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애견수제간식과 애견의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외에 반려인과 반려견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찾아보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저도 외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경력이 단절되고, 취업난을 다시 한 번 겪어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에 간혀 복잡한 나날을 보내며 과연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 싶었지만, 언젠가 한번은 부딪혀 볼 과제라면 나이가 많은 적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매일 현재 내 상황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지금 이순간이 저를 더 발전시키는 시간이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이 순간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고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새롭게 부딪히고 배워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실력은 늘게 돼 있고 묵묵히 견뎌내다 보면 언젠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경력이 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해보면 돼. 다들 겪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